

음식과 소통

이명희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자재실

요즘 배가 그리 고프지 않은데도 이상스럽게 허기가 지는 일이 잦다.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프고,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는 맛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듯싶다. 그 지독한 허기가 도무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과부하로 몸에서 필요한 것 이상을 섭취하기 일쑤이니, 남는 것은 꽃피는 봄날에 미쳐 갈아입지 못한 거추장스러운 겨울옷처럼 무겁게만 느껴지는 듯한 외피뿐이다. 그렇게 세상에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그것들을 쉽게 내 몸으로 끌어들이어 오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이 허기는 어쩌란 말인지.

맛이란 무엇일까. 어릴 적 엄마의 품에서 맡아지던 냄새처럼 아련한 기억은 아닐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의 깊이일지도 모른다.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청을 들어드리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불효함의 아픈 기억일지도 모른다. 허기로 인해 떠오르는 맛은 혀끝을 맴돌아 머릿속으로 질주했다가 결국은 마음속으로 돌아온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심하게 허기질 때는 당장 빈 속이 그리워하는 맛도 있을 테지만 그보다 머릿속 주름 하나하나에 아득하게 박혀 있는 맛, 마음속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채워줄 맛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맛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맛을 느끼며 기억을 살리기도 하는 욕구인데 요즘에는 그런 원초적인 맛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는 지금 세상에서 쉽게 구하는 음식은 먹어도 먹어도 그 허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인 듯싶다. 쉽게 자극하는 맛, 달콤하고 강한 맛의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거북한 포만감은 그저 몸을 불리느라 혀끝을 둔하게 만드는데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간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선택한다. 수십 가지의 첨가물로 범벅된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천연 재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첨가물로만 만든 청량음료를, 수십 종의 합성 보존료가 들어간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거리낌없이 먹고 있으니 그 나중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같은 가공식품으로만 끼니를 때우며 살던 청년 둘이 죽었다는 외신도 있었고, 미국의 어느 방송국 PD는 그 폐해를 보여주고자 직접 몇 개월 동안 햄버거로만 생활을 하다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결국 중단한 일도 있었지만 그 폐해

가 당장은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 허기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몸을 거두고 마음을 거둬주는 음식을 자꾸만 멀리하다 보니 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끝없는 허기는 요즘의 먹고사는 방식으로 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원초적 욕구를 해결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가볍게 때우고 사는 것은 아닌 지. 먹는 일의 행복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는 단순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중요한 의식처럼 음식을 함께 먹 을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어야만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맛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맛 으로 몸을 다스리고, 고갈된 원기를 회복하고, 지치고 여유 없는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그 런 음식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그래서인가, 언젠가부터 밥 끓는 냄새가 지독하게도 그렇다. 이른 아침마다 밥솥에서 끓어 넘치는 밥물 냄새에 얼마나 허기가 느껴지던지. 시래기를 넣고 끓이는 된장국 냄새는 속을, 아니 마음의 허기를 얼마나 들쭉서놓던지. 곁에서 끓고 있는 냄 새에도 그만 아득해지는 그리움 같은 맛이 혀끝에서 살아나게 한다.

맛있는 음식이란 어떤 것일까. 어디선가 한 그릇 똑딱 때운 것 같은 음식이 하루 종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포만감에 어찌나 기분이 좋아지던지.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 그리울 때, 혹은 넘치는 마음을 어찌지 못할 때 맴도는 그리운 맛이 있다. 결국 맛에 대한 그리움은 누군 가와 소통이 필요해서 생기는 욕구인 듯싶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함께 둘러 앉아 나눠 먹 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욕구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 아이 에게, 식구들에게 먹이고 싶은 것이면 먼 곳까지 발품 팔아 직접 구해다 만들어 먹이면서 바 라볼 때의 그런 행복한 눈빛이 불러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허기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먹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곁의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대화 같 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눈빛이 음식의 맛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고 아이를 기억하 고 모태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만들고 먹는 음식이야말로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는 세 상을 벗어나 영혼의 허기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따뜻한 음식으로 오늘 한 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왁자지껄 모여서 다 함께 만들어 먹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모여서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다 보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오해와 반목으로 지낸 시간들이 해소되지는 않을까. 그런 기억이 켜켜이 쌓 여서 만들어진 음식이어야 지치고 외로워진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줄 한 끼를 오늘 함께 나누지 않으시렵니까.